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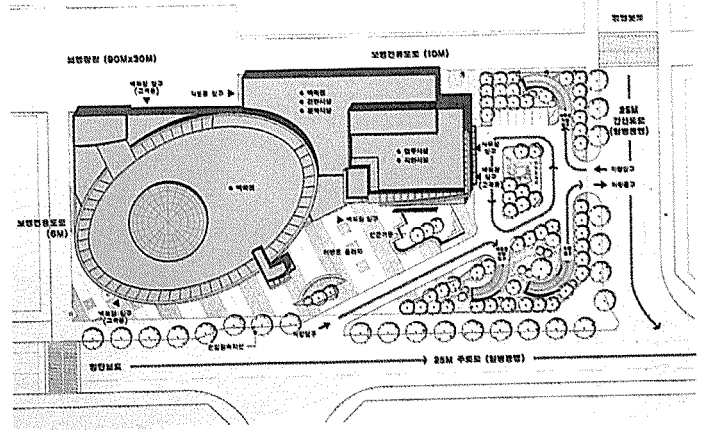
투시도

중소기업 전용 백화점

Department Stor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

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비재 뿐 아니라 중간재와 부품류도 판매하며, 공장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므로 싸 싸고 질 좋은 물건을 공급하게 될 전용백화점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, 이미지가 독창적이고 내부공간의 가능성을 잘 살린 점이 평가받은 범건축(강기세)안을 지난 3월 31일 당선작으로 선정, 발표했다.

지명설계로 치뤄진 이번 설계경기에는 총5개 사무소가 참여했으며, 우수작으로 예건축(박춘명)안이 선정됐다.



배치도

당선작

범건축 (강기세)

위치 /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-6
 대지면적 / 9,866㎡
 건축면적 / 4,870㎡
 연면적 / 75,410㎡
 건폐율 / 49%
 용적률 / 353%
 규모 / 지하5층, 지상17층
 외장마감 / 철골조+철골철근콘크리트조

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애로해결 및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시설제공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공공사업으로 지명현상 설계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건물수용기능은 백화점과 사무실로 복합용도성격을 띠고 있다.

계획대지는 목동중심상업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도시설계구역으로 도시설계 상위개념의 해석적 적용을 통한 차량동선 및 건물배치와 일반백화점과의 시장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별화된 이미지의 표현이 계획의 주된 목표였다.

도시설계의 특징적 내용은 중심상업지역의 주변으로 양측 주도로와 간선도로 연결의 일방통행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및 보행광장을 두어 건물의 벽면을 이에 1/2 이상

지정토록 되어 있다. 따라서 차량의 균형적 대지내 유입을 위해서는 주도로 및 간선도로 2면에서의 진입구를 간선도로측으로 출구를 두어 대지의 모서리 측으로 Open Space를 형성하고 건물은 자연히 보행자 전용도로 측으로 두어 백화점 기능을 보행광장 및 주 보행 접근로 측으로 배치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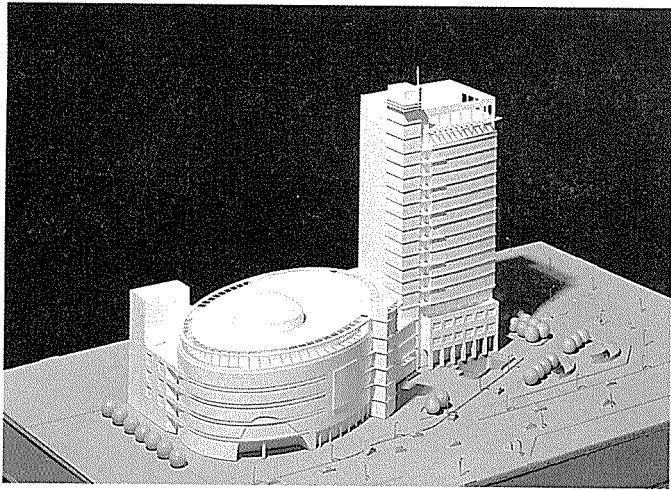
건물의 형태는 1차적으로 도시체계상의 교통흐름에 순응하여 모서리 대지의 시각적 완화 및 보행자의 접근성에 순응하는 벽면의 방향성을 반영하였으며 2차적으로 이를 단순화, 상징화하면서 변화, 성장 및 신뢰, 화합을 의미하는 타원형으로 구성하였다.

사무실측은 평면효율상 박스형태를 취하고 백화점의 타원곡면을 Layer를 달리하면서 중첩반복 사용하였으며 전체를 수평띠로 묶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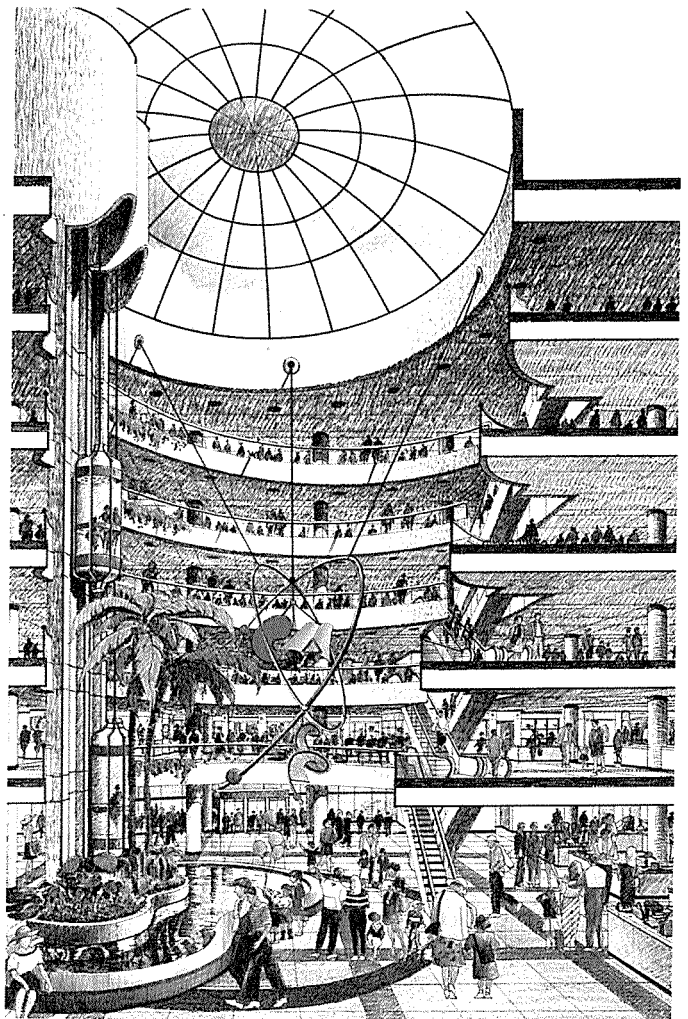
다양한 Mass에 통일감을 부여하였다.

매장내부는 매층 크기를 달리하는 타원 Open을 두어 전망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접하게 하고 Top Light를 통한 자연채광유입을 통해 극적 공간적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이는 외부형태와 함께 건물의 Identity를 강화시키는 유인적 요소로서 상업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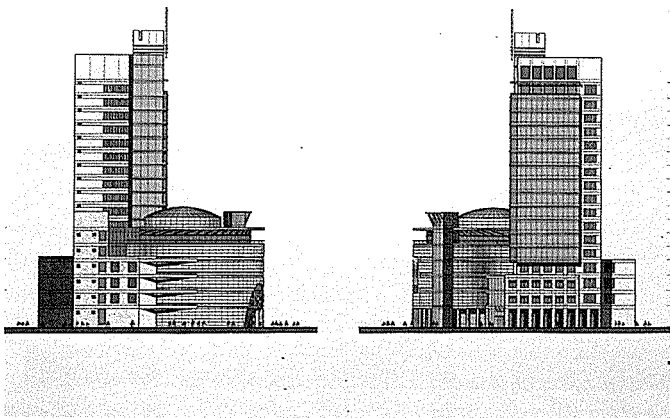
이 건물의 특징기능의 특별한 백화점이기 보다는 백화점 건축이 도심의 배경속에서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라 생각하며 초기 설계개념이 남은 설계과정 및 시공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진행 및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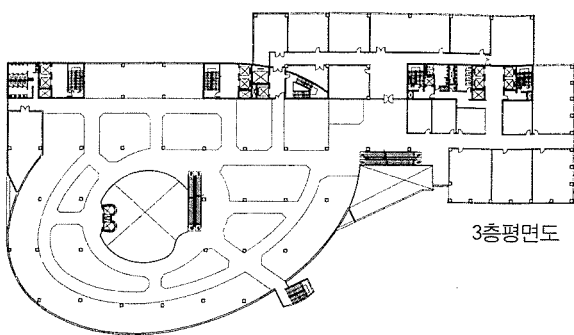
모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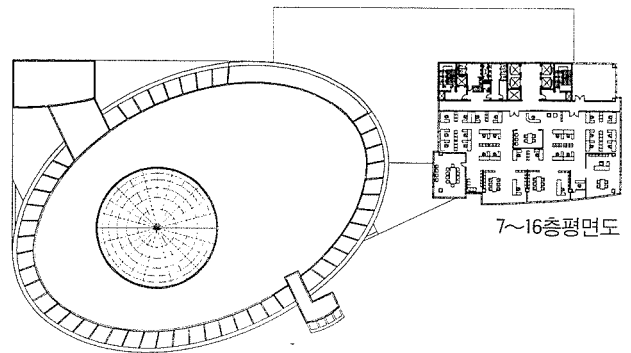
내부 투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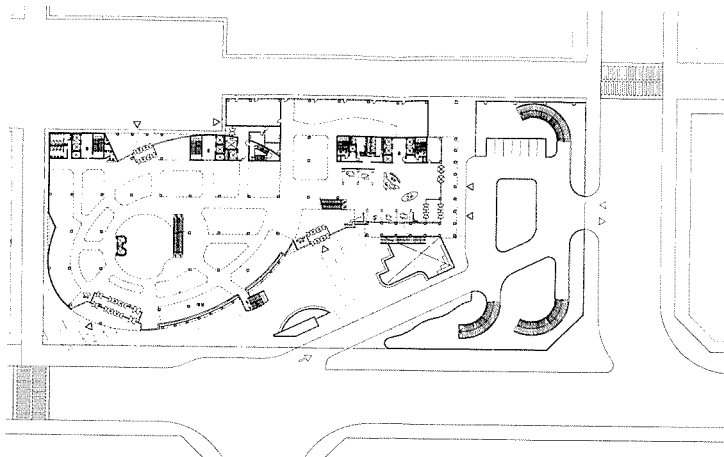
측면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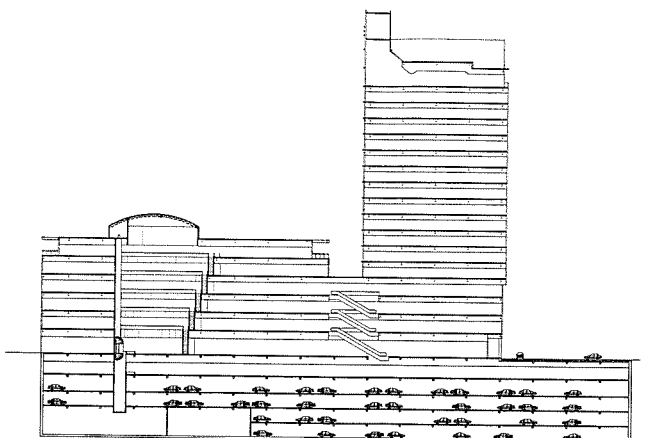
3층평면도



7~16층평면도



1층평면도



단면도

